

가는잎향유(*Elsholtzia angustifolia* Kitag.)의 종자발아 및 육묘생육에 미치는 재배조건에 영향

정은아¹⁾, 전기범¹⁾, 최혜민¹⁾, 문상아¹⁾, 연수호²⁾, 이승연³⁾, 권순태^{1)*}, 이철희^{2)*}

¹⁾안동대학교 원예육종학과, ²⁾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
³⁾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Effects of Cultural Condition on Seed Germination and Seedling Growth of *Elsholtzia angustifolia* Kitag.

Eun-ah Jeong¹⁾, Ki-beom Jeon¹⁾, Hye-min Choi¹⁾, Sang-a Moon¹⁾,
Su Ho Yeon²⁾, Seong Yeon Lee³⁾, Soon-tae Kwon^{1)*} and Cheol Hee Lee^{2)*}

¹⁾Dept. of Horticulture and Breed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²⁾Brain Korea 21 Center for Bio-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³⁾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pyeong 12519, Korea

가는잎향유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종으로 꽃이 아름답고 향이 좋아 관상 및 약용으로 사용되나, 무분별하게 남획되기도 하여 자원의 보호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는잎향유의 종 유지 및 재배방법 확립을 위하여 종자를 이용한 육묘조건을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은 파종용기, 파종립수, 토양종류, 추비농도 및 차광정도 등을 각 처리별로 2017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8주간 수행되었다. 가는잎향유의 종자를 162, 200, 288구 트레이 및 사각분에 파종한 처리 중, 162구 트레이 처리구에서 엽면적과 지하부 생체중이 가장 넓거나 무거웠으며, 파종립수는 한 cell당 2립 처리구에서 초장이 안정적이고 엽면적이 넓었다. 파종용 상토로는 피트모스:펄라이트(3:1) 처리구가 코코피트:펄라이트(3:1) 처리구보다 생육에 효과적이었으며, 비료는 혼용토에 300-200-200 mg \square ¹(N-P-K)를 혼합한 처리구에서 발아율, 마디수, 엽록소 지수 등이 우수하였다. 재배관리는 추비는 hyponex를 농도별로 시비하였으나, 무처리구보다 생육에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재배시 차광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는잎향유의 실생육묘에 유리하였다. 따라서, 가는잎향유의 육묘를 위해서는 피트모스:펄라이트(3:1) 혼용토에 비료를 300-200-200 mg \cdot L⁻¹를 첨가한 토양을 162구 트레이에 충전하여, 한 cell에 2립씩 파종하고 무차광 조건에서 재배하며, 추비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생육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활용도 다변화, 연중재배 및 개화조절 기술 개발, KNA 17-C-38”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주요어: 야생화, 관상식물, 종자육묘, 파종립수, 혼합상토